

여성, 돌봄을 쓰다

내가 쓰는 글이 나를 돌본다

폴벌 김 화 숙



여행의 재미, 낯선 만남



돌봄 글쓰기, 여행을 나서며

1

작가와 강좌 소개, 여행 일정

글쓰기라는 대화 여행 일정

2

내가 쓰는 글이 나를 돌본다?

돌봄 글쓰기 참여자 목소리

3

내가 읽는 시가 나를 돌본다

시 낭독 후 수다

4

내가 쓰는 시가 나를 돌본다

모방시 쓰기

5

내가 듣는 시가 나를 돌본다

모방시 낭독과 수다

6

돌봄 글쓰기 참여 소감 나누기

다음 글쓰기 안내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3자대화의 대원칙을 지지합니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 방금 전 작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도 어찌보면 자신들의 대화 상대를 찾기 위해서 절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글쓰기라고라?



24년 전, 아줌마 자유기고가

이대학보

메뉴 > 캠퍼스 > 지음 > 커리어 > 학술·문화 > 지역·국제 > 사회이슈 > 오마이뉴스

메뉴 > 캠퍼스 > 캠퍼스일반

난 아줌마란 이름이 좋다

박준희 기자 | 2011.12.06 20:02 | 조회수 3944

줄마네 설립자 이숙경 대표를 만나다



줄마네 : 여자들의 자립과 예술적 성장을 돕는 곳

좋아요 1.6천개 · 팔로워 1.7천명



메시지 보내기

게시물 정보 언급 릴스 사진 동영상 더 보기

소개

since 2001

페이지 · 커뮤니티

02-333-2279

zoomane@naver.com

tmtmie

cafe.naver.com/zoomanett

사진

사진 모두 보기

종류이 한미로임
비밀요리학교,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

종류이 공부방
종류이 공부방, 종류이 공부방, 종류이 공부방

종류이 한미로임
비밀요리학교,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

대표 콘텐츠

줄마네 : 여자들의 자립과 예술적 성장을
5월 29일 오후 12:40

틈틈이 6월 개강 안내

손뜨개와 명상, 노래교실, 글쓰기 수업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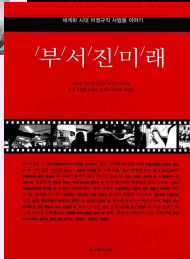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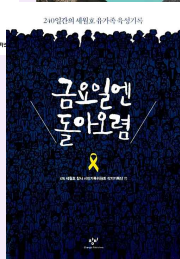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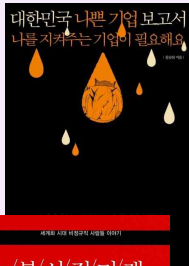
틈틈이 공부방

6월9일
개강!

- ✓ **필요 콘텐츠**
5월 29일 오후 12:40
- ✓ **회고 명상**
5월 29일 오후 12:40
- ✓ **주요 작사작곡 / 주요 노래교실**
5월 29일 오후 12:40
- ✓ **목표 글쓰기**
5월 29일 오후 1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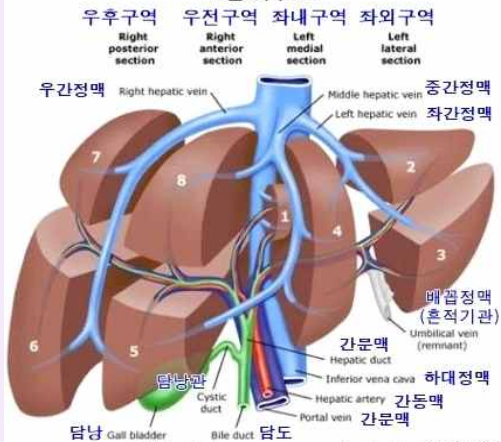
게시물

17년 전, “자서전 쓰기”



11년 전 암, “나”를 먼저 돌봄

<간 해부도>



출처 <http://tgh.amegroups.com/article/view/3589/4327>



버킷 리스트 1번, “내 목소리”



안산여성노동자회
ANSAN WOMEN WORKERS ASSOCIATION



북콘서트 <82년생 김지영>

안산의제 성평등분과 '우리 대화할까요?'

82년생 김지영들의 삶

82년생
남녀에 대한 차별과 평등 의식이 공존하던 시대,
82년생 중 가장 흔한 이름은 '김지영'이다.
소설속에서 '김지영'이란 여성은 아름답거나 평범한 삶을 산다.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김지영이 존재한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성의 삶은 소설속의 김지영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여성이란 이름만으로 감내해야 했던 경험들,
어쩔 수 없이 겪을해야만 했던 수많은 김지영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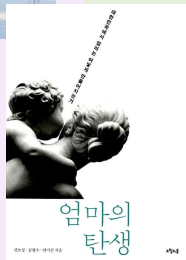
일 시 2017. 12. 6. (수) 16:00 ~ 18:30
장 소 커피공방 "피움"
참 여 자 안산의 여성활동가 누구나
참가문의 안산의제21 ☎ 031-483-0221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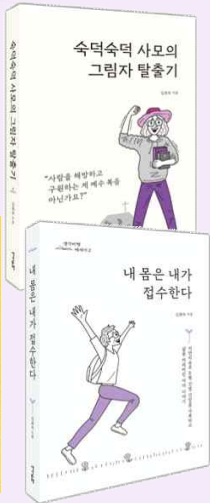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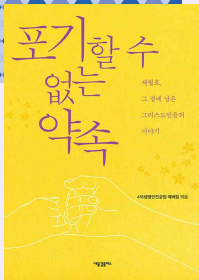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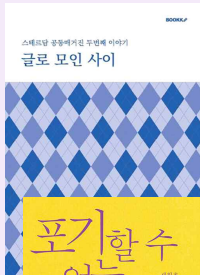
1부 영상과 책 나누기
2부 안산의 김지영들의 수다
62년생 김지영 : 김화숙
72년생 김지영 : 김해정
82년생 김지영 : 이은경
92년생 김지영 : 아배나

안산의제21 성평등분과

7년 전 울림, “여성, 글을 쓰다”



3년 전,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북토크



글쓰기, 결핍이라는 재능

“주류 질서의 척도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학벌에 대해선 예외가 없어요.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꿨다던 이들도 결국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라고 말해요. 저 지점을 내가 뚫어야 겠다 마음먹었죠. 혼자만의 독립운동이지만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깨어 있으려면 하나의 결핍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1년생 김지영 vs 62년생 김화숙



“해리” 지영이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일
그 공포, 피로, 당황, 놀람, 혼란, 좌절의
연속에 대한 인생 현장 보고서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낮선 나에게로 가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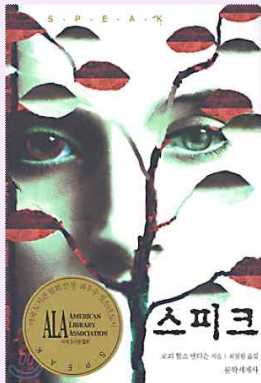
“내 안에 설정된 선, 거스를 수 없다고
밟고 있는 무엇이 화들짝 놀라고 흔들리고
있었지. 그래, 낯선 세계였어. 중력을
거슬러 물구나무 서버린 코끼리가 조금씩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더구나.”

-김화숙, 《같이 걷는 길》

당신 목소리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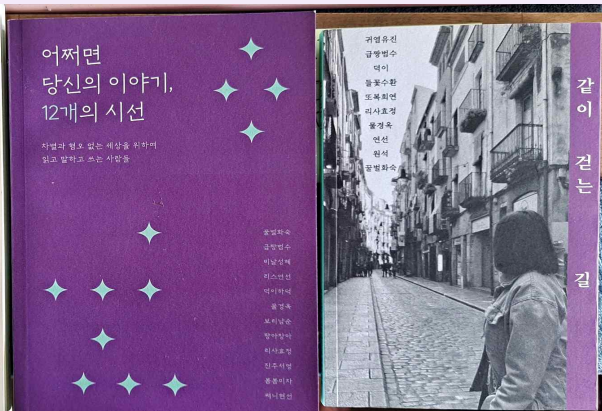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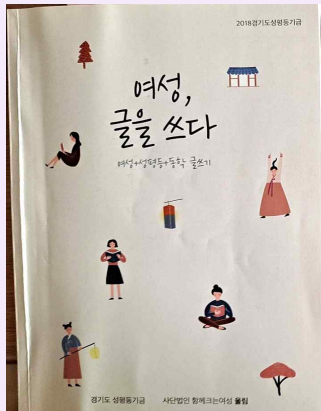
내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대



“내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샌디 번스타인과
항상 내 말에 귀기울여주는
남편, 그레그를 위해.”

-로리 할스 앤더슨, 《스피크》

함께 내는 목소리, 글쓰기



돌봄 글쓰기, 내 목소리를 찾아서

1주

몸과 마음 풀기. 왜 여성-돌봄-글쓰기?

안내, 소개, 모방시 놀이

2주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

자기 돌봄의 자전적 에세이

3주

인용, 주장, 통찰을 담은 글쓰기

서평, 칼럼, 편지, 유서

4주

경청과 서로 돌봄의 글쓰기

인물 인터뷰 글쓰기

5-8주

퇴고의 재미 퇴고의 힘

낭독, 합평, 고쳐쓰기

9-10주

책 출간 · 북토크 및 뒤풀이

지속가능한 글쓰기

여행 준비 됐니꺼?

꿀벌 김화숙

휴대폰 : 010-3918-9217

이메일 : dream40k@hanmail.net

브런치 : <http://brunch.co.kr/@dream40k>

블로그 : <http://blog.naver.com/kkulbol>

“여성, 돌봄을 쓰다”,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2025 경기도 생애돌봄 공모사업
여성 돌봄을 쓰다
주. 돌봄돌

올린 영화토론 딸에 대하여

2025. 5. 17.(화) PM 8:00 ZOOM

지혜영 김화숙 페미니스트 작가

기대어사 [전] 후 토론 N W U Y

넷플릭스 및 차 웹 사이트 티빙 유튜브

사전발인 워크숍은 여성성출원 031 482 0505

시각 비크
시각 비크

[illegible]

777 2025 장외1호 생활미술 공모사업
 아동·유아동 분야

돌봄 그림책강좌

김지은 /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2025. 6. 23. 월 AM 10:30

울림교육장

2025. 7. 3. 목 PM 8:00

ZOOM

인강은 배너나서 곡을 따라가 돌봄을 받고 돌봄을 주는 존재로서 돌봄은 인간적 기본권이며 우리 사회의 공적 과제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힘을 배워야 돌봄을 주고 받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글로 쓰기 위해 그림책에서 여성과 돌봄을 살펴봅니다.

*강의실은 2025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6/17 ^수 양현호님	6/20 ^금 양현호님	6/23 ^월 김지은님	7/3 ^목 김지은님	7/8 ^수 김지은님
ZOOM	YHIC 4층	울림교육장	ZOOM	울림교육장

15452151648@zoom.us
 (강의실 배너 밑에 QR코드 참조)

사단법인 한평초·여성살림 031 482 0505

2025 경기도 상생형 글씨대전

돌봄 글쓰기

내가 쓴 글이 나를 돌본다

민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주고 받는 존재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돌봄의 의미를 나누고 글쓰고 **여름 내내 사랑**을 통해 나 스스로를 돌보아주세요.

일정	7/1 7/15 7/22 8/19 8/26 9/2 9/9 9/16 (총 8회) 매주 화 10:30~13:00
장소	돌봄 교육장
내용	돌봄 나눔에 글쓰기 및 협명
진행	김하숙 페미니스트 작가
참가비	회원 2만원 비회원 2만5천원
보통크	11:00~12:00 물류 교육장



신청링크

문화속 페미니스트 작가



시민합인 협회교육사업팀 031-482-0505

1. 가스 밸브를 열며/ 정끝별(1964~)

이십 년 전 일이다 첫딸을 낳은 직후였고 강의를 마치고
강사실에 들어갔을 때였다 독신의 선배가 독설을 날렸다

오랜만 시인!

엄마는 절망할 수 없다는데 절망 없는 시인의 시는 안녕할까?

그때 나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할 일은 많았고 시 쓸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맏소사 둘째까지 낳고

둘째가 성년이 되는 날

천돌에봉인해 두었던 그 말을 꺼내들었다

나를 향해 있었다 눈부시게 베풀어져 있었다 날을 향해 기꺼이 달려갔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절망 따위

이제 그만 엄마여도 돼

2. 두꺼비/ 박성우(1971~)

아버지는 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두꺼비부터 씻겨주고 늦은 식사를 했다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나는 녀석을 시샘했었다 한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살짝 만져보았다 그런데 녀석이 독을 뱉어대는 통에 내 양 눈이 한동안 충혈 되어야 했다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다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일 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집을 지으셨다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내 아버지 양손엔 우툴두툴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3. 엄마/ 김혜순(1955~)

나는 엄마다

딸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내가 또 새끼를 근엄하게 훈계하고

먹여서 기르니

나는 엄마다

엄마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 행세를 한다

그건 안 돼!

하지 마!

패릴 거야!

그 전에 난 엄마가 아니었다

어렴풋한 기억 저편

나에게도 엄마가 있었다

두 눈이 전우주를 향해 열려 있고

손가락들이 명왕성 해왕성을 꼬집고 놀 때

나에게도 엄마가 있었다

나의 엄마도 나에게 엄마 행세를 했다

별 떨어질라 푸르른 창공 아래엔

지붕을 덮고

바람 불라 넓은 벌판 한가운데

벽을 세우는

엄마가 있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다

시야를 좁게 가져라

저 까만 우물을 향해 투신해라

영혼을 아무데나 흘리고 다녀선 안 된다

그래서 나도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린 자식의 시야에 칸을 지르고

넌푸른 영혼에 금을 긋고

우물을 파는

자못 교훈적인 엄마가 되었다

4. 이불을 껴매면서/ 박노해(1957~)

이불흔청을 껴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의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 청소에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켰었다

동료들과 노조 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갇아먹으면서

나는 성실한 모범근로자였었다

노조를 만들면서

저들의 칭찬과 모범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 좋은 솜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편리한 이론과 절대적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된
몸서리쳐지는 이윤추구처럼
나 역시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었다

투쟁이 깊어 갈수록 실천 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 낸다
노동자는 이윤 낚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에 바탕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흔침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